

경제지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환율
3017.73 +11.32	1001.26 -6.60	1186.00 +1.50

금리·유가(12.17)

CD(91일)	1.27	-	국고채(3년)	1.76	-
콜금리(12.16)	0.99	▼0.01	회사채(3년)	2.39	-

휘발유(12.19)	1639.06	▼0.38	두바이유(달러/배럴)	72.43	▼0.59
고급휘발유(12.19)	1866.70	▼0.10	WTI	70.72	▼1.43

환율 ※ KEB하나은행 제공

미국(USD)	1186.00	▲1.50	스위스(CHF)	1290.60	▲10.27
일본(JPY100)	1044.61	▲7.08	캐나다(CAD)	925.98	▼1.37
중국(CNY)	185.56	▼0.17	뉴질랜드(NZD)	801.74	▼5.62
유로(EUR)	1342.55	▲4.30	홍콩(HKD)	152.00	▲0.18
영국(GBP)	1575.72	▲2.23	브라질(BRL)	208.48	▼0.03

서점 휩쓴 '여인천하'... 작가 4인이 꼽은 올·내년 화두

올해 서점가는 '우먼 파워'가 돋보였다. 이미에 작가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구트 폼 백화점' 12권의 연이은 베스트셀러로 스타작가 반열에 올랐다.

서점인들이 꼽은 '올해의 작가'로는 정세랑 작가가 선정됐다. '저점이 뽑은 올해의 작가'는 출판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작가를 주로 선정한다. 정 작가는 올해 에세이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를 출간하고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활약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한국 SF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초엽 작가는 첫 장편소설 '지구 끝의 온실'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후 '방금 떠나는 세계' '행성어서점' 등을 잇달아 출간한 김 작가는 출판인 60인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5년 만에 신작 '작별하지 않는다'로 돌아왔다. 제주 43사건을 그린 '작별하지 않는다'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저력을 입증했다.

아울러 '밤의 여행자들'로 영국 추리작가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거상 번역추리소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윤고는 작가 역시 올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밖에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도 윤성희 '날마다 만우절, 최은미 '눈으로 만든 사람' 등 여성 작가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하는 등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국내 문학계를 이끄는 여성 작가 4인이 꼽은 키워드를 통해 올해를 반추해보고 내년을 전망했다.

최은영, 2021년 '인내'·2022년 '공존'

첫 장편소설 '밝은 밤'을 선보인 최은영 작가는 올해의 키워드로 '인내'를 꼽았다. 최 작가는 "코로나 팬데믹이 예상보다도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을 오래 참아야 했다"며 '인내'를 키워드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키워드는 '공존'이다. 그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누리는 일상이 아닌 길 바란다"며 공존할 수 있는 2022년을 희망했다.

'쇼코의 미소'로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최 작가는 이후 여러 차례 중단된 소설로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성



왼쪽부터 '밝은 밤' 최은영 작가, '완전한 행복' 정유정 작가, '나인' 천선란 작가, 동화 '달콩이네 떡집' 김리리 작가.

올해, 코로나 극복 '인내·나르시시즘·윤여정·무인도' 2022년, 희망 찾아 '공존·AI·협업·탈출'로 세상살기

을 인정 받았다.

올해 내놓은 첫 장편소설 '밝은 밤'으로 대산문학상을 수상했다. '밝은 밤'은 여성 4대의 일대기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된 여성의 역사가 장대하게 재현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정유정, 2021년 '나르시시즘'·2022년 'AI' 신간 '완전한 행복'으로 스텔라 소설계를 다시 한 번 평정한 정유정 작가는 올해의 키워드로 '나르시시즘'을 꼽았다.

정 작가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여지는 집단 나르시시즘의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며 "자기에 혹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위험한 나르시시즘을 만들 우려가 있다. 자기만의 행복이 아닌,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내년 키워드는 'AI(인공지능)'다. 그는 "인간이 가진 지혜가 과학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통제가 불가능한 힘의 부조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딥러닝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가 가까워질수록 인간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올해 자기애의 늪에 빠진 극단적 나르시시스트인 주인공으로 한 소설 '완전한 행복'으로 돌아왔다.

기존 베스트셀러 '종의 기원' '7년의 밤' 역주행에 이어 신작 역시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 '역사 정유정'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천선란, 2021년 '윤여정'·2022년 '협업' 영어덜트 소설 '나인'을 선보인 천선란 작가는 올해의 키워드에 대한 질문에 "올해 오스카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의 수상소감에 정말 감동받았다"고 답하며 '윤여정'을 꼽았다. 천 작가는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당시 그때, 그 장소에서 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크게 와 닿았다.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키워드로는 '협업'을 들었다. 그는 "문학계도 이제 다른 매체와 함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소설이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과 함께하는 일이 많아지고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가 직접 원작을 발굴하기도 한다"며 "내년엔 더 많아질 것이다. 다른 분야와 같이 일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천 개의 파랑'으로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천 작가는 올해 '책에 갇히다' '우리는 이 별을 떠나기로 했다' '밤

에 찾아오는 구원자' '저기 인간의 적이 있다' 등 활발한 출판 활동을 했다.

신작 장편소설 '나인'은 평범한 고등학교 '나인'이 어느 날 식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이다.

김리리, 2021년 '무인도'·2022년 '탈출'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를 집필한 김리리 작가는 올해 키워드로 '무인도'를 들었다. 김 작가는 "올해는 마치 무인도 상황과 같았다"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다 고립됐고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을 들 때가 있었다"고 말했다.

내년 키워드로는 '탈출'을 바랐다. 그는 "코로나 종식도 중요하지만 고립된 데서 나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현실에서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내년은 다른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 작가는 2010년 '만복이네 떡집'을 출간한 후 떡집 시리즈로 85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어린이 동화의 새 기록을 세웠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한 '만복이네 떡집' 이후 '장군이네 떡집' '소원 떡집' '양순이네 떡집' '달콩이네 떡집' 등 5권을 펴냈다. 신간 '달콩이네 떡집'은 유키전 센터에서 데려온 '달콩이'와 한 가족이 되고 싶은 봉구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책이다. 스키아데일리/뉴스스

오늘의 고사성어

貧者一燈
빈자일등
가난한 사람이 바친 하나의 등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소중함을 비유하는 말

賓至如歸
빈지여귀
손님으로 남의 집에 갔는데 제집에 돌아온 것 같다는 뜻
손님이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 같아 걱정없이 편안한 대접을 받는다는 말

貧賤之交
빈천지교
가난하고 천할 때 가깝게 사귀는 사이 또는 그런 벗

출처: 가가대소성어정리
편자: 왕원근(王元根, 왕필)

- 인사**
- ◆ 강원도교육청 > 4급 전보 ▲ 춘천교육문화관장 강홍준 ▲ 행정국장 전봉주 ▲ 안전담당관 유선중 ▲ 행정국 총무과장 박옥녀 ▲ 행정국 예산과장 권명일 ▲ 행정국 노사법무과장 김홍진 ▲ 행정국 행정과장 정영훈 ▲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김웅기 ▲ 강원도교육연구원 총무부장 김순형 > 5급 전보 ▲ 행정국 시설과장 직무대리 황득중 ▲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서순욱 ▲ 동해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영호 ▲ 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심병식 ▲ 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송찬호 ▲ 원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장성수 ▲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김홍철
- 부고**
- ▲ 김복선 씨 별세, 황성준(마포정형외과의원 원장)·성기씨(서울신문노년실장) 모친상 = 18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정례식장 17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2-2227-7500
 - ▲ 허택원 씨 별세, 허명희씨 부친상, 문원배 씨(문원배 통증의원 원장) 장인상 = 18일, 대동병원장례식장 VIP 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51-550-9991
 - ▲ 신의철 씨 별세, 신동예(종로서림)·수연(만화가)·수진(만화가)·동규 씨(MBN 기자) 부친상, 백기혜 씨(산업방송채널 기자) 시부상 = 18일, 충남 이산 제일장례식장 특1호, 발인 20일 오전 9시. 041-545-4444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 홍찬선 지음 | 352P 18,000원

• 이 소설은 샘(泉)이다. 작가가 짧은 기간 내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쏟아낸 샘이고, 우리가 이야기해 풍겼다면 다음 아님 자기 얼굴을 보게 되는 샘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시리디 시리게 맑은 샘이다. 정겨웠던 한국 농촌에서 태 났지 않은 아이의 눈동자로 퍼 올린 샘이다. - 최문형(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 작가, 칼럼니스트, '식물처럼 살기' 저자)

•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뛸 초보 소설가로서는 돈키호테 같은 말로 들린다. 하지만 "꿈은 아름답고 상상은 즐겁다. 삶은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가 조국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갈등을 푸는 불쏘시개가 된다면 그의 바람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세계일보>

•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가치 전도의 세상에서 진영논리에 얽히지 말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품격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배고픈 시대가 지났는데도 조화보다는 갈등, 협동보다는 투쟁적이라면 김구 선생이 언급한 문화국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원뉴스>

•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천가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는 초인, 니체가 아닐까. 아니면서 늘 거기에 서 있다. 아주 큰 나무 같은 사람. 그래서 오래버니 풍뎠렁 정겹다. 소설집 『그해 여름의 하얀 운동화』도 그렇게 일한다. 그가 말하는 촌놈은 사상이이고 철학자이다. 그가 좋다. 사람 냄새가 나서 참 좋다. <이태경 시인>

• 자신의 어렵던 시절을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용기다. 그런 용기는 현재의 만족함에서, 어느 고지에 다다른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힘이다. 더 어렵고 더 힘겨운 소설 같은 과거사를 보자기에 신주단지처럼 포장한 사람들은 이런 용기를 부러워 할 것이다. 여러 아재들 위에 계란 하나 올리고 새콤한 유자 소스 얹은 샐러드 같은 한창처럼 잘 받았다. <신경자 숲해설가>

홍찬선의 또 다른 작품!

- <임시정부 100년 시대 조국의 기생충은 누구인가 / 27,000원>
- <삼 DMZ해원가 / 20,000원>
- <일-3·1정신 홍찬선 / 15,000원>
- <길 - 대한제국 친족곡 / 23,000원>
- <일제종주주의 / 홍찬선 외 5인 공저 / 21,000원>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관련 문의 : 070-7868-8799

NEXEN MEDIA